

##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 -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이환진\*

하느님이 모세의게 날으샤되  
나는 자연스럽게 잇는자라 하시고  
또 날으샤되 너는 이스라엘 주손의게 날으기를  
자연히 계신이가 나를 너희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고  
(『성경전서』, 출애굽기 3:14)

神謂摩西曰  
我自然而然者也  
又曰, 爾告以色列嗣可如此云  
我自然者遣我於爾 (브리지만-컬벳슨역, 출애굽기 3:14)

우리나라 최초의 완역성경인 『성경전서』(1911, 이하 『구역』으로 약칭)의 번역 대본은 무엇일까? 민영진 박사는 최근 글에서 한문성경 화합본(1919)에 반영되어 있는 그 이전의 한문성경이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고<sup>1)</sup> 이덕주 교수는 레이놀즈의 글을 인용하여 신약의 번역 대본이 한문성경 대표본(1854)이었다고 말한다.<sup>2)</sup>

이 글에서는 당시 한국인 번역가들이 참조하였을 여러 한문성경과 선교사들이 참조하였을 영어성경을 한글 『구역』(1911) 번역 본문과 함께 분석해 봄으로써 『구역』의 번역 대본이 무엇이었는지 추정해보기로 한다. 이들 번역가들이 히브리어를 읽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본문은 시편과 잠언 그리고 욥기에서 몇 구절을 택하였다.<sup>3)</sup>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 『Canon & Culture』 4:1 (2010), 19, 22.

2)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 신학적 의미”, 『Canon & Culture』 4:1 (2010), 89.

3) 한글 『성경전서』(1911)의 번역시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공인역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인 첫째 시기와 (2) 신약이 완성된 이후의 둘째 시기 그리고 (3) 레이놀즈 번역 팀이 작업을 한 마지막 시기가 그것이다. 시편은 첫째 시기인 1906년에, 잠언은 둘째 시기인 1907년에, 그리고 욥기는 마지막 해인 1910년에 나온 책이다.

## 1. 19세기와 20세기 초의 한문성경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나온 한문성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설명할 한문성경은 네 역본이다. 우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한문성경으로는 대표본(1854)과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이다. 그리고 일본어 성경의 번역 대본이었던 브리지만-컬벗슨역(1864)과 현대 중국어성경 화합본(1919)의 어머니 역본 역할을 한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을 들지 않을 수 없다.<sup>4)</sup>

대표본(1854)은 제임스 렉(James Legge)을 위시한 영국인 선교사들이 펴낸 성경전서이다. 특히 중국 고전을 많이 인용하여 번역한 성경으로 유명한데 성경과 중국 고전이 다른 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려고 노력한 책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각 성경 책의 이름과 고유명사가 이 책에서 많이 왔다.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은 대표본(1854)의 자유로운 번역원칙에 불만을 품은 두 미국인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전서이다. 영어성경 KJV(1611)를 근간으로 삼고 대표본(1854)의 표현이나 용어를 많이 채택하여 옮겼다.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은 유대계 미국인으로 미국성공회 중국 선교사가 된 쉘레쉴브스키(S. I. J. Schereschewsky)가 북경어로 옮긴 구약성경이다. 지금도 중국인들이 읽고 있는 국어체 화합본(1919)의 모체가 된 성경으로 유명하다.<sup>5)</sup>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은 위의 쉘레쉴브스키가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을 근간으로 삼아 대표본(1854)으로 고쳐 옮긴 성경전서이다. 한글 『개역』(1938)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성경이다.

## 2. 『구역』의 구약 번역 본문 - 시편과 잠언과 욕기

4) 19세기와 20세기의 한문 성경은 세 문체로 번역되어 있다. 사서삼경과 똑같은 문체인 문리체와 이것보다 조금 쉬운 문체인 쉬운 문리체 그리고 중국인의 입말에 가까운 관화체(官話體)가 그것이다. 중국인들은 문리체를 “심문리”(深文理)로 쉬운 문리체는 “천문리”(淺文理)로 또 관화체는 “국어체”(國語體)라 부르기도 한다. 위에서 인용한 대표본(1854)과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은 문리체 성경이고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은 이름 그대로 쉬운 문리체 성경이다. 그리고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 역시 그 이름대로 관화체 성경이다.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주석과 성서 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기념 제2권, 왕대일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40-447, 448-451, 453-454, 456-457 참조.

5) Irene Eber, *The Jewish Bishop & the Chinese Bible: S. I. J. Schereschewsky (1831-1906)*, Leiden: Brill, 1999, 248-258.

『구역』(1911)을 번역한 과정은 여러 한문성경과 영어성경을 훑어보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인 번역가들이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우리말로 옮기면 선교사 번역가들이 RV(1881)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sup>6)</sup>

함께 읽어볼 본문은 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이다. 여기서의 위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네 한문성경과 영어성경 KJV(1611)와 RV(1881) 그리고 한글 『구역』을 함께 놓고 비교하고자 한다. 맨 위에는 대표본(1854)을, 두 번째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세 번째는 쉘레셰브스키 관화역본(1875)을, 네 번째는 쉘레셰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을, 그리고 영어 KJV와 RV(1881)를 놓고 마지막에 『구역』(1911) 본문을 나란히 신는다. 각 역본의 이름이 길어 발행연도로 구분하기로 한다. 한문성경은 띄어쓰기를 모두 쉼표로 표기하고 있으나 읽기 편하도록 띄어서 인용했다.<sup>7)</sup>

## 2.1. 시편(85:10-13)

시편의 경우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근간으로 RV(1881)로 고친 경우는 85:10-12a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85:12b-13이다. 하지만 85:12b는 쉘레셰브스키 관화역본(1875)의 용어를 빌려와 옮겼고 85:13a는 쉘레셰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과 똑같이 읽었다.

### 시편 85:10

(1854) 恩寵眞實, 咸相維繫, 公義和平, 並行不悖兮

(1864) 矜恤與眞理已相交, 公義與和平已相接吻兮

(1875) 恩典與誠實彼此相遇, 公義與和平彼此相接

(1902) 恩惠誠實, 彼此相遇, 公義和平, 彼此相接

(1611) Mercy and truth are met together; righteousness and peace have kissed each other.

(1881) Mercy and truth are met together; Righteousness and peace have kissed each other.

(1911) 공휼과 진리가 서로 사귀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초앗도다

『구역』(1911)의 “공휼과 진리가 서로 사귀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초앗도다”는 정확하게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공휼여진리이상교, 공의여화평이

6) 두 영어성경이 거의 같지만 RV(1881)가 당시에 최근판 성경이고 또한 신명을 KJV(1611)는 “the Lord”로 표기하는 반면 RV(1881)는 한글 『구역』(1911)과 같이 “Jehovah”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해 본다.

7) 각 한문성경이 지니고 있는 그 뜻의 미묘한 차이를 일일이 확인해주신 김상기 박사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상접문해”(矜恤與眞理已相交, 公義與和平已相接吻兮)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점은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에서 두 번 반복되는 “이(已) … 이(已) …”를 『구역』(1911)은 “입맛초앗도다”라는 마지막 말 속에 한꺼번에 집어 넣고 “앗도다”라는 과거형으로 읽은 점이다. 물론 대표본(1854)의 “공의화평”(公義和平)은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에 들어 있는데 이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이 때로 용어를 대표본(1854)에서 빌려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구역』(1911)의 이 구절은 또한 두 영어성경과도 비슷하다. 다만 두 번 반복되는 “서로”를 두 영어성경은 “함께”(“together”)와 “서로”(each other)로 약간 달리 읽은 점뿐이다.

시편 85:11

(1854) 眞理自地而出平直由天而降兮

(1864) 眞理自地而生, 公義自天垂顧兮

(1875) 誠實由地而萌, 公義從天而現

(1902) 誠實由地而萌, 公義從天而顯

(1611) Truth shall spring out of the earth; and righteousness shall look down from heaven.

(1881) Truth springeth out of the earth; And righteousness hath looked down from heaven.

(1911) 진리는 자오로브터 소사나고 공의는 하늘노브터 내려와 보앗도다

『구역』(1911)의 이 구절도 브리지만-컬벳슨역(1864)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소사나고”는 두 영어성경의 “spring”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한국인 번역가들이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대본으로 우리말로 옮기고 선교사 번역가들이 영어성경으로 그 번역을 고쳤는데 이 구절에서는 “소사나고”가 그 예이다. 곧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생”(生)을 “소사나고”로 고친 듯하다. 물론 『구역』(1911)의 “소사나고”는 대표본(1854)의 “출”(出)을 옮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대표본(1864)의 “출”(出)은 “내려오다”라는 뜻의 “강”(降)과 짝을 이루어 등장하고 “출”이라는 말에 “샘솟다”라는 뜻(동아 181)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구역』(1911)의 “진리”와 “공의”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똑같이 등장하는 “(자)오로브터”와 “(하늘)노브터” 또한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에 나오는 “자지”(自地)와 “자천”(自天)의 “자”(自)를 옮긴 듯하다. 대표본(1854)은 “자(自)·… 유(由)·…”로 쉘레쉴브스키의 두 성경은 “유(由)·… 중(從)·…”으로 달리 읽기 때문이다.

『구역』(1911)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려와 보앗도다”(내려와 보았도다)는 브

리지만-컬벳슨역(1864)의 “수고”(垂顧)를 옮긴 듯하다. “수”(垂)는 “드리우다”나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처져서 늘어지다”라는 뜻(동아 345)을, “고”(顧)는 “돌아보다”는 뜻(동아 2019)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고”(垂顧)란 말이 “돌봄”이나 “은혜를 베풀”이란 뜻(동아 345)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 한글 『구역』(1911)이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따른 듯하다. 또한 1890년에 나온 『한영즈던』(韓英字典, 107)은 “보다”를 “돌보다”라는 뜻으로도 설명한다.

시편 85:12

(1854) 耶和華兮, 錫以嘉物, 俾其土壤, 物產豐亨

(1864) 耶和華將賜善物, 我地將賜其產兮

(1875) 主也必降賜洪福, 使我們地的出產甚是豐盛

(1902) 主亦賜福, 使我之地出產豐盛

(1611) Yea, the Lord shall give that which is good; and our land shall yield her increase.

(1881) Yea, Jehovah will give that which is good; And our land shall yield its increase.

(1911) 여호와께서 요흔 거슬 주시리니 우리 땅은 그 풍성함을 내리로다

『구역』(1911)의 앞부분은 브리지만-컬벳슨역(1864)과 똑같다. 또한 두 영어성경과도 같은데 다만 맨 앞의 “yea”를 옮기지 않은 것만 다르다. 뒷부분은 두 영어성경과 거의 같다. 다만 “소출”이란 뜻의 “increase”를 웨레셰브스키 관화역본(1875)의 “시풍성”(是豐盛)을 따라 “그 풍성함”으로 고쳐 읽은 것만 다르다.

시편 85:13

(1854) 主秉大公, 順義而行兮

(1864) 公義將先之而行, 且立我於其所步行之路兮

(1875) 公義行在他前, 使我登他所行的路

(1902) 公義行在主前, 使我儕登主所行之道

(1611) Righteousness shall go before him; and shall set us in the way of his steps.

(1881) Righteousness shall go before him; And shall make his footsteps a way to walk in.

(1911) 공의가 주 앞에 행하야 주의 행하시는 자취를 밟는 길이 되게 하리로다

이 부분은 RV(1881)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곧 선교사 번역가들의 입김이 강

하게 들어간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뒷부분 때문이다. RV(1881)는 뒷부분의 목적어가 “그의 발자국”(“his steps”)이고 목적어 보어가 “밟는 길”(“a way to walk in”)이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뒷부분의 목적어가 모두 “우리”이다.

『구역』(1911)의 뒷부분 또한 RV(1881)와 똑같다. “주의 흥하시니 자취”는 RV(1881)의 “his footsteps”를 옮기면서 “his”를 실명사화하여 “주의”라고 읽었고 “발자취”란 뜻의 “footsteps”를 “흥하시니 자취”라는 명사구로 옮겼다. “밟는 길”은 “a way to walk in”을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브리지만-켈벗슨역(1864)의 “보행지로”(步行之路)와도 가깝다.

『구역』(1911)은 앞부분에서도 RV(1881)의 “Righteousness shall go before him”의 “him”을 “주”로 실명사화하여 “공의가 주 압헤 흥하야”로 읽었다. 결과적으로는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의 “공의행재주전”(公義行在主前)과 같은 뜻으로 옮겼다.

## 2.2. 잠언 (1:1-7)

잠언도 시편과 같이 브리지만-켈벗슨역(1864)을 근간으로 삼고 RV(1881)를 따라 고쳐 읽은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앞의 경우는 1:1-1:3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1:4-5와 1:7이다. 1:6은 RV(1881)를 근간으로 삼아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의 표현을 빌려와 옮긴 듯하다.

잠언 1:1

(1854) 以色列王所羅門, 大關之子也, 所著箴言

(1864) 以色列之王, 大關子所羅門之箴言

(1875) 以色列王大貝的兒子所羅門的箴言

(1902) 以色列王大衛子所羅門之箴言

(1611) The proverbs of Solomon the son of David, king of Israel;

(1881) The proverbs of Solomon the son of David, king of Israel:

(191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고유명사가 많이 등장하는 이 구절은 전반적으로 『구역』(1911)은 브리지만-켈벗슨역(1864)과 두 영어성경 그리고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을 옮겼으나 우리말 어법에 맞게 바꾸어 읽었다. “다윗의 아들”과 “이스라엘왕”을 바꾸어 읽은 것이 그것이다.

『구역』(1911)의 “잠언”(잠언)이라는 용어는 대표본(1754)에서 온 듯하다. 이후의 모든 한문성경 또한 대표본(1854)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표기는 최초의 구약 한글번역으로 알려져 있는 존스(조원시)의 구약공부(1893)에서도 이미 발

견된다.

『구역』(1911)의 이 구절 어순을 보면 “다윗의 아들”을 먼저 언급하고 “이스라엘왕”을 나중에 위치시킨 것은 네 한문성경과는 다른 어순이다. 오히려 두 영어성경의 어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두 영어성경은 그대로 읽자면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구역』(1911)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왕 솔로몬”의 순서로 읽은 듯하다. 만일 한문성경처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읽으면 다윗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역』(1911)의 “다윗”이라는 표기는 “다윗”(1898년 시편촬요)과 “자윗”(1898년 마태복음, 1900년 『구역』 신약)을 거쳐 이미 1906년 시편부터 “다윗”의 형태로 고정되어 『구역』(1911)이 이를 따른 듯하며 이 표기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은 시편촬요(1898)가 이미 똑같이 표기한 것으로 보아 『구역』(1911)이 이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하다. “솔로몬”이라는 표기는 1898년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듯하다. 같은 해에 나온 시편촬요는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대로 “설로모”(127편 소제목)로 표기한다. 『구역』(1911)은 1898년 마태복음을 따른 듯하며 한글 『개역』(1938)까지도 이 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개역한글판』(1961)부터 한글 맞춤법에 따라 “솔로몬”으로 표기하고 있다.<sup>8)</sup>

#### 잠언 1:2

(1854) 訓人以智, 迪人以理

(1864) 使人識智慧與訓, 明有智者之言

(1875) 爲要使人曉得智慧和訓誨, 通曉明哲的言語

(1902) 欲使人知智慧訓迪, 通達哲言

(1611) To know wisdom and instruction; to perceive the words of understanding;

(1881) To know wisdom and instruction; To discern the words of understanding;

(1911) 이는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지식의 말씀을 씌듯게 하며

8) 구약공부(1893)는 대표본(1854)을 따라 각각 “대벽”(大關)과 “이색렬”(以色列)과 “소라문”(所羅門)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달리 19세기 한문성경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경우 “이색렬”(以色列)과 “소라문”(所羅門)이라는 음역 전통이 대표본(1854)부터 고정되어 표기하고 있으나, “다윗”의 경우 “대벽”(大關)과 “대폐”(大貝)와 “대위”(大衛)로 서로 다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구역』(1911)은 “이는”이란 앞에 말을 집어넣은 것 말고는 대체적으로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옮겼다.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은 또한 두 영어성경과 같다.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사인식지혜여훈”(使人識智慧與訓)을 옮기되 “훈”(訓)을 “교훈”으로 바꾼 것 말고는 똑같다.

또한 뒷부분인 “지식의 말씀을 씌듯게 하며”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명유지자지언”(明有智者之言)을 옮기되 “지혜가 있는 자”란 뜻의 “유지자”(有智者)를 “지식”으로 바꾸었는데 두 영어성경의 “understanding”을 이렇게 읽은 듯하다. 잠언 1:5에서도 RV(1881)의 “the man of understanding”을 “지식잇는 자”로 읽은 것을 보면 그렇다.

곧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한국인 번역가들이 우리말로 옮기고 선교사 번역가들이 RV(1881)로 그 번역을 확인하면서 고친 듯하다. 특히 “지식의 말씀”은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지혜있는 자의 말씀”이란 뜻의 “유지자지언”(有智者之言)을 이렇게 고쳤다.

잠언 1:3

(1854) 得明至道, 得秉公義

(1864) 俾承智慧公義理鞠正直之訓

(1875) 使人領受通達的訓誨, 勤守公平, 義理

(1902) 承訓以得聰明, 秉公, 執義, 守正

(1611) To receive the instruction of wisdom, justice, and judgment, and equity;

(1881) To receive instruction in wise dealing, In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equity.

(1911) 지혜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교훈을 받게 하며

『구역』(1911)은 전체적으로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지혜”(智慧)와 “공의”(公義)와 “정직”(正直)도 모두 브리지만-컬벳슨역(1864)과 공유하고 있는 번역어이다. 다만 “이국”(理鞠)을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의 “공평”(公平)으로 바꾸었을 뿐이다.<sup>9)</sup>

“받게 하며”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비승”(俾承) 또는 두 영어성경의 “to receive”를 옮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문장 구조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과 영어성경 KJV(1611)와 같다.

9) 히브리어 “미쉬파트”(משפט)를 옮긴 것인데,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은 이 용어의 “재판, 심문”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이국”(理鞠)으로 읽었다. 반면 『구역』(1911)은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처럼 이 용어 속에 들어 있는 “공의, 정직”라는 뜻을 강조하여 “공평”(公平)으로 읽은 듯하다(2010년 8월 25일 김상기 박사의 의견).

잠언 1:4

(1854) 使拙者明徹, 少者通達

(1864) 致拙者明徹, 年少者獲知識謀畧

(1875) 使愚拙人靈明, 使少年人有知識, 有謀畧

(1902) 使拙者靈明, 少者獲知識謀畧

(1611) To give subtilty to the simple, to the young man knowledge and discretion.

(1881) To give prudence to the simple, To the young man knowledge and discretion.

(1911) 어리석은자로 명철케 하며 젊은자의게 지식과 총명을 줌이니

『구역』(1911)은 대체적으로 두 영어성경을 따른 듯하다. 특히 “어리석은자”는 “the simple”(한영즈던 Part II, 233)을, “줌이니”는 “to give”를, “총명”은 “discretion”(한영즈던 Part II, 79)을 옮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동사의 경우 브리지만-컬벗슨역(1864)과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은 “얻다”는 뜻의 “획”(獲)을 사용하고 있고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은 “있게 하다”는 뜻의 “사(使) …유(有)”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두 영어 성경의 “to give”와는 다르다. 다만 뒷부분의 “지식”은 대표본(1854)을 제외한 세 한문성경의 용어를 빌려온 것이든지 아니면 두 영어성경의 “knowledge”를 옮긴 듯하다(한영즈던 Part II, 151).

잠언 1:5

(1854) 哲者聞此而增其學, 明者聞此而益其慧

(1864) 智者聞之而進學, 明者聞之而益謀

(1875) 使智慧人聽見增長學問, 使聰明人聽見開廣智謀

(1902) 哲者聞之, 增益學問, 明者聞之, 開廣智謀

(1611) A wise man will hear, and will increase learning; and a man of understanding shall attain unto wise counsels:

(1881) That the wise man may hear, and increase in learning; And that the man of understanding may attain unto sound counsels:

(1911) 지혜 잇는자로 하여곰 듣고 학문에 진보하며 지식 잇는자로 하여곰 확실한 도락을 얻어

대체적으로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을 근간으로 RV(1881)를 거의 그대로 옮긴 듯하다.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의 앞부분은 “지혜잇는 자가 듣고 학문에 진보하며”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반복하여 나오는

“…잇는자로 하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브리지만-켈벗슨역(1864)에는 없다. 웨레셰브스키 관화역본(1875)에는 이 뜻의 “사”(使)가 『구역』(1911)처럼 반복되기는 하나 뒷부분이 『구역』(1911)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면에서 RV(1881)가 “That … may”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구역』(1911)과 같이 “…으로 하여금”이라는 뜻으로 옮길 수 있다.

또한 RV(1881)의 뒷부분은 『구역』(1911)과 매우 비슷하다. “지식 잇는자”는 “the man of understanding”을 “확실흔 도락”은 “sound counsels”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치사 “unto”가 문제이긴 하지만 “얻어” 또한 “attain”을 문자 그대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구역』(1911) 앞부분의 “학문에 진보하며”에서 “학문”은 웨레셰브스키 관화역본(1875)의 “학문”(學問)의 영향인 듯하다.

#### 잠언 1:6

(1854) 玩味箴言之微旨, 可悟賢人之隱語

(1864) 致明夫箴言, 及其解釋, 明智者之言, 及其隱語

(1875) 又使人明白箴言和譬喻, 謹曉智慧人的講論和謎語

(1902) 使人得明箴言與喻言, 得悟智者之詞及其隱語

(1611) To understand a proverb, and the interpretation; the words of the wise, and their dark sayings.

(1881) To understand a proverb, and a figure, The words of the wise, and their dark sayings.

(1911) 잠언과 비유를 씩듯게 흠이니 이는 지혜 잇는자의 말과 및 그 오묘한 교훈이라

이 부분은 RV(1881)를 근간으로 삼고 웨레셰브스키 관화역본(1875)의 용어를 빌려와 옮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역』(1911) 앞부분의 “잠언과 비유를 씩듯게 흠이니”[使人明白箴言和譬喻]는 웨레셰브스키 관화역본(1875)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 역본의 영향은 『구역』(1911) 뒷부분의 “지혜 잇는자”[智慧人]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묘한 교훈”은 RV(1881)의 “dark sayings”를 옮긴 표현으로 보인다. “오묘한”은 “dark”를, “교훈”은 “sayings”를 옮긴 것인데 “말”이나 “속담”이란 뜻(English-Corean Dictionary 280)을 지니고 있는 “sayings”를 “교훈”으로 읽은 것이 특이하다.

#### 잠언 1:7

(1854) 其箴曰, 寅畏耶和華, 是爲智之本, 愚魯者流, 藐視道學

(1864) 畏耶和華之寅畏, 乃知識之本, 惟愚人藐智慧與訓焉

(1875) 敬畏耶和華, 是知識的開端, 愚昧人藐視智慧和訓誨

(1902) 敬畏主, 是爲智慧之本, 愚昧人藐視智慧與訓誨

(1611)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1881) The fear of Jehovah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the foolish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1911)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시 지식의 근본이로되 미련한자는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느니라

『구역』(1911)은 RV(1881)와 거의 같지만 브리지만-켈벗슨역(1864)을 따라 약간 고쳐읽은 듯하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시”는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의 “경외야화화”(敬畏耶和華)에서 빌려오기도 한다.

“지식의 근본” 그리고 “지혜와 교훈”은 브리지만-켈벗슨역(1864)의 “지식지본”(知識之本) 그리고 “지혜여훈”(智慧與訓)을 각각 약간씩 바꾸어 읽은 듯하다. “본”(本)을 “근본”으로 “훈”(訓)을 “교훈”으로 바꾸어 읽은 것이 그것이다.

한글성경에서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구역』(1911)에서 비롯되어 『개역』(1938)을 거쳐 『새번역』(2004)까지 이어진다.

### 2.3. 욥기 (1:20-2:6)

욥기도 앞의 두 책처럼 브리지만-켈벗슨역(1864)을 근간으로 삼아 RV(1881)와 일치시키려고 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의 경우는 1:20-21이며 뒤의 경우는 1:22와 2:2-3이다. 브리지만-켈벗슨역(1864)이나 RV(1881)와 같은 경우는 2:1이다.

욥기 1:20

(1854) 約百遂起, 裂衣薙首, 伏地拜曰

(1864) 時, 約百起裂衣薙首, 伏地而拜

(1875) 約百便起, 來撕裂衣服, 薙除頭髮, 伏地而拜

(1902) 約伯遂起, 裂衣薙首, 伏地拜曰

(1611) Then Job arose, and rent his mantle, and shaved his head, and fell down upon the ground, and worshipped,

(1881) Then Job arose, and rent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and fell down upon the ground, and worshipped;

(1911) 이에 욥이 니러나 옷을 찢고 머리 털을 버히고 싸에 엎드려 경뵈하며

『구역』(1911)은 전반적으로 위의 모든 성경과 비슷하지만 맨 앞의 “이에”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시”(時)를 옮긴 것으로 보아 이 구절도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근간으로 삼아 영어성경과 일치시키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영어성경의 “then”이란 표현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구역』(1911)의 “머리 털”이라는 표현이 독특하다.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은 “두발”(頭髮)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세 한문성경의 용어인 “수”(首)라는 말에도 “머리털”이라는 뜻(동아 2044)도 들어 있기에 『구역』이 다른 세 한문성경을 따라서 읽었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니다.

또한 『구역』(1911)은 맨 끝에 “왈”(曰)을 붙여 읽지 않고 다음 절 맨 앞에 “말흐딕”라고 놓고 읽는다. 이점은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이나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과 똑같다.

욥기 1:21

(1854) 我裸而出世, 亦必裸而歸土, 耶和華賜之, 耶和華取之, 當頌讚耶和華

(1864) 曰, 我裸而出母胎, 亦必裸而歸, 耶和華賜之, 耶和華取之, 頌美耶和華之名也

(1875) 說, 我赤身出母胎, 也赤身歸土, 賞賜的是主, 收取的也是主, 主的名應當讚美

(1902) 我裸身出母胎, 亦裸身歸土, 賜之者主, 取之者亦主, 當頌美主之名

(1611) And said, Naked came I out of my mother's womb, and naked shall I return thither: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th taken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1881) and he said, Naked came I out of my mother's womb, and naked shall I return thither: Jehovah gave and Jehovah hath taken away; blessed be the name of Jehovah.

(1911) 말흐딕 내가 적신으로 모퉁에 나왔스니 쏘흔 적신으로 도라 같지라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빼앗으셨스니 여호와와 일홈을 가히 찬송하리로다  
흐고

대체적으로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근간으로 삼아 RV(1881)와 일치시키려고 한 듯하다. 두 영어성경이 똑같지만 RV(1881)가 신명을 “여호와”(“Jehovah”)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만 『구역』(1911)의 “적신”은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의 “적신”(赤身)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뒷부분의 “여호와와의 일흠을 가히 찬송하리로다” 또한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송미”(頌美)를 “찬송”으로 바꾸어 읽었을 뿐이다. “찬송”은 『구역』(1911)에만 나오는 용어이다.

그런데 “여호와와의 일흠을 가히 찬송하리로다”에서 “가히”는 “할 수 있다”라는 뜻보다는 “마땅히 …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김원중 27). 곧 대표본(1854)이나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의 “당”(當)이나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64)의 “응당”(應當)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sup>10)</sup>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구절은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가지고 RV(1881)와 대조하여 옮기기는 하였지만 “가히”와 같이 미세한 부분은 여러 한문성경을 반영하였다. 그렇지만 “찬송” 같은 번역어는 『구역』(1911)만의 용어이기도 하다.

욥기 1:22

(1854) 約百不犯罪, 不非上帝如此

(1864) 凡若此者, 約百不犯罪, 亦不以愚非神

(1875) 約伯雖遭遇如此卻仍不犯罪, 不以天主爲不公

(1902) 約伯雖遇此, 猶不犯罪, 不以上帝爲不公

(1611) In all this Job sinned not, nor charged God foolishly.

(1881) In all this Job sinned not, nor charged God foolishly.

(1911)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아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지아니 하더라

두 영어성경을 근간으로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으로 고쳐 읽은 듯하다. 『구역』(1911)의 “이 모든 일에”에서 “모든”은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범약차자”(凡若此者) 가운데서 “범”(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영어성경의 “in all this”라는 표현이 『구역』(1911)과 가깝다. “욥이 범죄치아니 하고”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과 대표본(1854)의 “요백불범죄”(約百不犯罪)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은 대표본(1854)을 그대로 따른 듯하다.

뒷부분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지아니 하더라”는 『구역』(1911)의 독특한 읽기인 듯하다. 물론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우”(愚)와 두 영어성경의 “foolishly”는 각각 “어리석음,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게”로 읽어 『구역』(1911)과 비슷하기는 하다.

『구역』(1911)의 “어리석은 말을 하다”라는 부분을 대표본(1854)과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은 “원망하다”라는 뜻의 “비”(非)로 표현하며, 쉘레쉴브스키의

10) 2010년 8월 25일 대표본(1854) 읽기 모임에서 김상기 박사가 말한 의견이다.

두 성경은 “...를 ...로 여기다”라는 뜻의 “이(以) ... 위(爲) ...” 구조로 표현한다. 두 영어성경은 “어리석게 ...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의 “charge ... foolishly”로 달리 표현한다.

욥기 2:1

(1854) 一日, 衆天使至耶和華前, 撒但亦在其中

(1864) 又一日神之諸子來, 自現於耶和華前, 撒但亦來其中, 自現於耶和華前

(1875) 一日衆天使來侍立主面前, 撒但也來在其中, 侍立主面前

(1902) 又一日衆天使至, 立於主前, 撒但亦來其中, 立於主前

(1611) Again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came also among them to present himself before the Lord.

(1881) Again it came to pass on the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Jehovah, that Satan came also among them to present himself before Jehovah.

(1911) 또 흐로는 하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압헤 섰는디 사단도 그 온디 와서 여호와 압헤 선지라

『구역』(1911)은 전반적으로 브리지만-퀄벳슨역(1864)이나 RV(1881)와 일치시키려고 한 듯하다. “여호와”(Jehovah)라는 신명을 보면 분명하다. KJV(1611)는 “the Lord”로 읽기 때문이다.

문장의 시작 부분의 “또 흐로는”에서 “또”는 브리지만-퀄벳슨역(1864)에만 있는 “우”(又)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영어성경에도 같은 뜻의 “again”이 있다. 그리고 “하늘의 아들들”이란 표현 역시 “신지제자”(神之諸者)를 옮긴 말로 보인다. 물론 이 표현도 두 영어성경의 “the sons of God”과 같은 뜻이다.

두 번 반복되는 “여호와 압헤 서다”라는 표현에서 “여호와 압헤” 또한 브리지만-퀄벳슨역(1864)의 “어야화화전”(於耶和華前)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브리지만-퀄벳슨역(1864)은 이 표현을 대표본(1854)에서 빌려 온 듯하다. 반복되는 이 표현을 대표본(1854)은 뒤에서는 생략한 것으로 보면 이 표현은 브리지만-퀄벳슨역(1864)에서 온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물론 “여호와 압헤 서다”에서 “서다”는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에 나오는 “입재주면전”(立在主面前)의 “입”(立)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브리지만-퀄벳슨역(1864)과 두 영어성경은 “스스로 나타내다”라는 뜻(동아 1467)으로 각각 “자현”(自現)과 “to present themselves(또는 himself)”로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은 전반적으로 브리지만-퀄벳슨역(1864)의 문장을 따르

되 다만 “서다”라는 용어만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에서 빌려 와 고쳐 읽은 듯하다. 물론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은 RV(1881)와 거의 같다.

욥기 2:2

(1854) 耶和華謂撒但曰, 汝奚自. 對曰, 余遍歷塵寰, 往來靡定

(1864) 耶和華謂撒但曰, 爾從何來, 撒但答耶和華曰, 從遨遊於地, 從周行於地上而來

(1875) 主問撒但說, 你從那裏來, 撒但回答主說, 我周游徧地普行地上而來

(1902) 主問撒但曰, 爾自何來, 撒但對主曰, 我遨遊徧地, 周行地上而來

(1611) And the Lord said unto Satan, From whence comest thou? And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From going to and fro in the earth, and from walking up and down in it.

(1881) And Jehovah said unto Satan, From whence comest thou? And Satan answered Jehovah, and said, From going to and fro in the earth, and from walking up and down in it.

(1911) 여호와께서 사단의게 날으샤되 네가 어디로브터 오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야 굴으되 사에 두루도라 여기 더기 든니다가 왔느이다

RV(1881)을 근간으로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으로 약간 고쳤다. 뒷부분에서는 『구역』(1911)의 고유한 읽기도 보인다.

앞부분인 “여호와께서 …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야 굴아디”까지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 그리고 RV(1881)와 가깝다. 특히 “네가 어디로브터 오느냐”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이종하래”(爾從何來)나 두 영어성경의 “From whence comest thou?”를 직역한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의 “이자하래”(爾自何來)와도 똑같은 하다.

그런데 “사에 두루도라 여기 더기 든니다가 왔느이다”라는 뒷부분은 『구역』(1911)의 독특한 읽기로 보인다. 물론 “사에 … 여기 더기 든니다가”는 네 한문성경에는 없는 표현이고 두 영어성경의 “From going to and fro in the earth”를 그대로 옮긴 듯하다. 특히 “to and fro”를 “여기 더기”로, “from going”은 “든니다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장 구조상 “두루도라”를 “사에”와 “여기 더기 든니다가” 사이에 집어넣어 읽은 것은 다른 역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역』(1911)만의 읽기이다. 물론 “두루도라”는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이나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의 “주행”(周行)을 옮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문장 구조가 『구역』(1911)만의 고유한 구조이다. 또한 세 한문성경은 “지상”(地上)이란 용어

를 모두 문장 끝부분에 집어넣어 읽었고 두 영어성경도 “in it”으로 읽었지만 『구역』(1911)은 이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읽었기 때문이다.

욥 2:3

(1854) 耶和華曰, 我僕約百, 品行純良. 孳孳爲義, 寅畏乎我, 遠諸不善, 天下莫與比擬, 汝亦鑒之乎. 因爾所言, 我無故降災, 彼亦不失其本心

(1864) 耶和華謂撒但曰, 爾置心於我僕約百, 見在地無若彼篤實, 正直, 畏神而離惡者乎, 爾雖懲我攻之, 無辜以敗之, 彼猶堅守其篤實也

(1875) 主問撒但說, 你曾用心觀察我僕人約百沒有, 世上沒有人如他良善正直, 敬畏天主, 遠離惡事, 我雖聽你的話無故降禍與他, 他仍然持守己善

(1902) 主問撒但曰, 爾曾諦觀我僕約伯否, 世無人如彼, 篤實正直, 敬畏上帝, 遠離惡事, 我聽爾言, 無故降災於彼, 彼仍持守其善

(1611) And the Lord said unto Satan, Hast th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in the earth, a perfect and an upright man, one that feareth God, and eschewed evil? and still he holdeth fast his integrity, although thou movedst me against him, to destroy him without cause.

(1881) And Jehovah said unto Satan, Hast thou considered my servant Job? for there is none like him in the earth, a perfect and an upright man, one that feareth God, and turneth away from evil: and he still holdeth fast his integrity, although thou movedst me against him, to destroy him without cause.

(1911) 여호와께서 사단의게 날으샤되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더 곳치 완전하고 경직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자가 세상에 업니라 네가 나를 권하야 실패업시 더를 멀하게 하였셔도 더가 오히려 조기의 의를 갖게 직혔느니라

RV(1881)를 근간으로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이나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으로 고쳐 읽었다. 그러나 『구역』(1911)의 독자적인 읽기도 눈에 띈다.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따른 것은 “권하다”[懲]이고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으로 고친 부분은 “자세히 보다”[諦觀]와 “하나님 경외”[敬畏上帝]이다. 『구역』(1911)의 독자적인 읽기는 “조기의 의”이다.

앞부분의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에서 “자세히 보다”는 위의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한문성경의 경우 대표본(1854)은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고 브리지만-컬벳슨역(1864)과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은 각각 “마음을 두다”로 히브리어를 직역하거나 “마음 써서 관찰하다”로 이중번역을 하였다. 다만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이 “네가 어찌 내 종 욥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느냐?”라는 뜻으로 “이증체관아복요백부”(爾曾諦觀我僕約伯否)라고 읽어 “자세히 보다”라는 뜻(동아 1688)으로 “체관”(諦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나 이 문장은 부정 의문문이고 『구역』(1911)은 평서 의문문이다.

또한 뒷부분의 “완전하고 정직해야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썩난자”라는 표현에서 “정직”과 “경외”와 “악에서 멀리 썩난자”는 쉘레쉴브스키의 두 성경과 같으나 “완전”은 두 영어성경의 “a perfect … man”에서 “perfect”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낫치 …세상에 업느니라”는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의 “세상물유인여타”(世上沒有人如他)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글 문장은 앞에서 언급한 옮기의 고정적인 표현을 이 속에 넣고 읽어 문장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구역』의 독자적인 읽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권하야 식둡업시 더를 멀하게 하엿셔도 더가 오히려 즈기의 의를 굿게 직헛느니라”에서 “네가 나를 권하야”는 브리지만-퀄벳슨역(1864)의 “이수중야”(爾雖懲我)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두 영어성경의 “움직이다”(“move”)와 비슷한 뜻이다. 또한 “식둡업시 더를 멀하게 하엿셔도”는 두 영어성경의 “though … to destroy him without cause”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1890년에 나온 『한영증언』(韓英字典, 75)에 “destroy”를 “멸하오”라는 뜻으로도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또한 “더가 오히려 즈기의 의를 굿게 직헛느니라”는 “즈기의 의를”이라는 부분만 빼고 브리지만-퀄벳슨역(1864)의 “피유견수기독실야”(彼猶堅守其篤實也)와 똑같다.

다만 “즈기의 의”는 『구역』(1911)만의 표현이다. 대표본(1854)은 “본심”(本心)으로, 브리지만-퀄벳슨역(1864)은 “독실”(其篤實)로, 쉘레쉴브스키의 두 성경은 “선”(善)으로 달리 읽는다. 다만 “즈기의 의”라는 표현에서 “즈기”는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의 “기선”(己善)의 “기”(己)에서 온 듯하다.

### 3. 『구역』(1911)에 영향을 미친 각 성경의 표현

위에서 살펴본 구절 가운데 『구역』(1911)만의 읽기도 있다. 시편의 “주의 칭하시는 자취”(85:13)와 잠언의 “(지식의) 근본”(1:7) 그리고 욥기의 “찬송하리로다”(1:21)와 “하느님을 향하야 어리석은 말을 하지아니 하더라”(1:22)와 “짜에 두루도라 여귀 더귀 든니다가 왔느이다”(2:2) 그리고 “즈기의 의”(2:3)가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RV(1881)와 브리지만-퀄벳슨역(1864)을 따라 옮겼다.<sup>11)</sup> 물론

대표본(1854)과 웨레쉴브스키의 두 성경에서도 가끔 용어나 표현을 빌려와 읽었다. 아래는 위의 분석을 따라 『구역』(1911)에 미친 각 성경의 영향을 나열한 것이다.

### 3.1. 대표본(1854)

- 시편 85:11 진리는 땅으로부터 소사나고 ⇨ 眞理自地而出
- 잠언 1:1 잠언 ⇨ 箴言
- 욥기 1:21 여호와(의 일흠을) 가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 當(頌讚)耶和華
- 욥기 1:22 욥이 범죄치아니하고 ⇨ 約百不犯罪
- 욥기 2:1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 撒但亦在其中
- 욥기 2:2 여호와께서 사단의게 날으샤되 ⇨ 耶和華謂撒但(曰)

### 3.2. 브리지만-컬벗슨역(1864)

- 시편 85:10 공휼과 진리가 서로 사귀고 ⇨ 矜恤與眞理已相交
-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초앗도다 ⇨ 公義與和平已相接吻兮
- 시편 85:11 진리는 땅으로부터 (소사나고) ⇨ 眞理自地而(生)
- 공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보앗도다 ⇨ 公義自天垂顧兮
- 시편 85:12 여호와께서 요혼 거슬 주시리니 ⇨ 耶和華將賜善物
- 잠언 1:2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 使人識智慧與訓
- (지식)의 말씀을 씨듯게 하며 ⇨ 明(有智者)之言
- 잠언 1:3 지혜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교훈을 받게 하며 ⇨ 俾承智慧公義(理鞠)正直之訓
- 잠언 1:5 지혜 잇는자로 하여곰 듣고 학문에 진보하며 ⇨ 智者聞之而進學
- 잠언 1:7 지혜(와 교훈) ⇨ 智慧(與訓)
- 욥기 1:20 이에 욥이 니러나 옷을 찢고 머리 털을 버히고 ⇨ 時, 約百起裂衣薙首
-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 伏地而拜
- 욥기 1:21 말하되 내가 (적신으로) 모퉁에 나왔스니 ⇨ 曰, 我(裸)而出母胎
- 또한 (적신으로) 도라 갈지라 ⇨ 亦必(裸)而歸
-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빼앗스니 ⇨ 耶和華賜之, 耶和華取之
- 여호와의 일흠을 (가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 頌美耶和華之名也
- 욥기 1:22 이 모든 일에 ⇨ 凡若此者
- 욕이 범죄치아니하고 ⇨ 約百不犯罪
- 어리석은 말 ⇨ 愚
- 욥기 2: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 又一日神之諸子來

11) KJV(1611)와 RV(1881)가 거의 비슷하지만 RV(1881)를 『구역』(1911)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신명을 『구역』(1911)은 RV(1881)처럼 “여호와”(Jehovah)로 읽기 때문이다.

여호와 압헤 (섯는디) < (自現)於耶和華前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 撒但亦來其中  
 여호와 압헤 (선지라) < (自現)於耶和華前  
 욥기 2:2 여호와와 피서 사단의게 날으샤디 < 耶和華謂撒但(曰)  
 네가 어디로브터 오느냐 < 爾從何來  
 사단이 여호와와 피 디답하야 곁으디 < 撒但答耶和華曰  
 욥기 2:3 더 굿치 (완전호고) 경직하야 < 若彼(篤實,) 正直  
 네가 나를 권하야... 하엿셔도 < 爾雖懲我(攻之)  
 (즈기의 의를) 굿게 직헿느니라 < 堅守(其篤實)

### 3.3. 웨레쉐브스키 관화역본(1875)

시편 85:12 그 풍성함 < 是豐盛  
 잠언 1:5 학문(에 진보하며) < 學問  
 잠언 1:6 잠언과 비유 < 箴言和譬喻  
 지혜 잇는자 < 智慧人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시 < 敬畏耶和華  
 지식(의 근본) < 知識(的開端)  
 지혜(와 교훈) < 智慧(和訓誨)  
 욥기 1:20 사에 엽드려 경복하며 < 伏地而拜  
 욥기 1:21 말하디 내가 적신으로 모퉁에 나왔스니 < 說, 我赤身出母胎  
 또한 적신으로 도라 갈지라 < 也赤身歸(土)  
 (여호와와) 일흠을 가히 (찬송하리로다 호고) < (主的)名應當(讚美)  
 욥기 2:2 사단이 (여호와와) 피 디답하야 곁으디 < 撒但(回)答(主)說  
 욥기 2:3 더 굿치 (완전호고) 경직하야 < 如他(良善)正直  
 (하느님을) 경외호고 악에서 멀니 썩난(자) < 敬畏(天主), 遠離惡(事)  
 세상에 업느니라 < 世上沒有人

### 3.4. 웨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

시편 85:13 공의가 주 압헤 행하야 < 公義行在主前  
 잠언 1:7 지혜(와 교훈) < 智慧(與訓誨)  
 욥기 1:21 (여호와와) 일흠을 가히 (찬송하리로다 호고) < 當(頌美主之)名  
 욥기 2:1 (여호와) 압헤 섰는디 < 立於(主)前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 撒但亦來其中  
 (여호와) 압헤 선지라 < 立於(主)前  
 욥기 2:2 네가 어디로브터 오느냐 < 爾自何來  
 사단이 (여호와와) 피 디답하야 곁으디 < 撒但對(主)曰  
 욥기 2:3 더 굿치 (완전호고) 경직하야 < 如彼, (篤實)正直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자가 ⇨ 敬畏(上帝), 遠離惡(事)

### 3.5. 제임스왕역(1611)

시편 85:11 진리는 싸오르브터 소사나고 ⇨ Truth shall spring out of the earth

시편 85:12 (여호와께서) 도훈 거슬 주시리니 ⇨ (the Lord) shall give that which is good

우리 짜는 그 (풍성함)을 내리로다 ⇨ our land shall yield her (increase)

잠언 1:2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 To know wisdom and instruction

지식의 말씀을 썬듯게 하며 ⇨ to perceive the words of understanding

잠언 1:3 지혜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교훈을 받게 하며 ⇨ To receive the instruction of wisdom, justice, and judgment, and (equity)

잠언 1:4 지식과 총명을 줌이니 ⇨ To give ... knowledge and discretion

잠언 1:7 미련한 자는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느니라 ⇨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욥기 1:20 이에 욥이 니러나 ⇨ Then Job arose

옷을 찢고 머리 털을 버히고 ⇨ and rent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싸에 엎드려 경배하며 ⇨ and fell down upon the ground, and worshipped

욥기 1:21 말하되 ⇨ And said

내가 적신으로 모뎀에 나왔스니 ⇨ Naked came I out of my mother's womb

또한 적신으로 도라 갈지라 ⇨ and naked shall I return (thither)

(여호와께서) 주시고 ⇨ (the Lord) gave

(여호와께서) 빼앗으셨스니 ⇨ and (the Lord) hath taken away

욥기 1:22 이 모든 일에 ⇨ In all this

욥이 범죄치아니하고 ⇨ Job sinned not

욥기 2:1 하느님의 아들들 ⇨ the sons of God

욥기 2:2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야 (골으되) ⇨ And Satan answered (the Lord)

여기 더기 ⇨ to and fro

욥기 2:3 (더 굳치) 완전하고 ⇨ a perfect (and an upright man)

썬듯업시 더를 멸하게 하였셔도 ⇨ though ... to destroy him without cause

더가 ... 굳게 직혔느니라 ⇨ he holdest fast

### 3.6. RV (1881)

시편 85:11 진리는 싸오르브터 소사나고 ⇨ Truth shall spring out of the earth

시편 85:12 여호와께서 도훈 거슬 주시리니 ⇨ Jehovah shall give that which is good

우리 짜는 그 (풍성함)을 내리로다 ⇨ our land shall yield its (increase)  
시편 85:13 공의가 (쥬) 압헤 힝햐 ⇨ Righteousness shall go before (him)  
(쥬의 힝햐시느) 자취를 밟는 길이 되게 흐리로다 ⇨ And shall make (his)

footsteps a way to walk in

잠언 1:2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 To know wisdom and instruction  
지식의 말씀을 씩듯게 하며 ⇨ to discern the words of understanding

잠언 1:5 지혜 잇는자로 하여곰 듯고 학문에 진보하며

⇨ That the wise man may hear, and increase in learning

지식 잇는자로 하여곰 확실흔 도락을 얻어

⇨ that the man of understanding may attain unto sound counsels

잠언 1:6 오묘한 교훈 ⇨ dark sayings

잠언 1:7 미련한자는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느니라 ⇨ the foolish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욥기 1:20 이에 욥이 니러나 ⇨ Then Job arose

옷을 찢고 머리 털을 버히고 ⇨ and rent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사에 엎드려 경배하며 ⇨ and fell down upon the ground, and worshipped

욥기 1:21 말하되 ⇨ And said

내가 적신으로 모퉁에 나왔스니 ⇨ Naked came I out of my mother's  
womb

또한 (적신으로) 도라 갈지라 ⇨ and naked shall I return (thither)

여호와께서 주시고 ⇨ Jehovah gave

여호와께서 빼앗으셨스니 ⇨ Jehovah hath taken away

욥기 1:22 이 모든 일에 ⇨ In all this

욥이 범죄치아니하고 ⇨ Job sinned not

욥기 2:1 하나님의 아들들 ⇨ the sons of God

욥기 2:2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야 (굴으되) ⇨ And Satan answered Jehovah

여기 더기 ⇨ to and fro

욥기 2:3 (더 낫치) 완전하고 ⇨ a perfect (and an upright man)

식둑업시 더를 멸하게 하였셔도 ⇨ though ... to destroy him without cause

더가 ... 낫게 직혔느니라 ⇨ he holdest fast

#### 4. 맺는 말

위의 분석을 통하여 『구역』의 번역 대본은 한문성경 브리지만-쿨벗슨역 (1864)과 RV(1881)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용어와 표현을 웨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과 웨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에서 빌려오기도 했다.

짧은 구절을 분석한 것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모두 열일곱 절 가운데 RV(1881)를 따른 절은 여덟 절 반(53%)이고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을 따른 절은 일곱 절 반(47%)이다. 그리고 한 절이 두 성경과 똑같다. 곧 시편(85:10-12)은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을 따른 절이 두 절 반, RV(1881)를 따른 절이 한 절 반이다. 잠언(1:1-7)은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을 따른 절이 세 절이고 RV(1881)를 따른 절이 네 절이다. 욥기(1:20-2:3)는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을 따른 절이 두 절이고 RV(1881)를 따른 절이 세 절이고 두 성경과 같은 절이 한 절이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기에 나온 시편은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을 많이 따랐다. 둘째 시기에 나온 잠언과 셋째 시기에 나온 욥기는 RV(1881)를 더 많이 따랐다. 따라서 또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처음에 한문 성경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에 더 많이 의지하여 번역한 점은 초기 일본어 성경 번역을 주도했던 제임스 헵번(James C. Hepburn)의 자문을 받은 때문인 듯하다.<sup>12)</sup> 초기 일본어 성경은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을 대본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sup>13)</sup> 이러한 경향은 1893년에 존스(조원시)가 펴낸 첫 한글 구약 본문인 『구약공부』와도 일치한다.<sup>14)</sup>

곧 초기에는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을 번역한 한국인 번역가들의 역할이 더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뒷부분으로 갈수록 RV(1881)를 근간으로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으로 고친 것은 선교사들의 역할이 더 컸다는 점을 말하는 듯하다.

(투고 일자: 2010. 8. 24, 심사 일자: 2010. 10. 1, 게재 확정 일자: 2010. 10. 1)

#### <주요어>(Keywords)

『구역』(1911), 번역 대본, 브리지만-컬벗슨역(1864), RV (1881), KJV (1611), 대표본(1854), 쉘레쉴브스키 관화역본(1875), 쉘레쉴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

Korean Old Version (1911), basic Texts,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1864), American Standard Edition of the Revised Version (1881), King James Version (1611), Bishop Schereschewsky's Version (Easy Wenli Bible)(1902).

12)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서울: 기독교문사, 1985, 433.

13) 강선아, “일본어역 성서 번역사 - 전도서 1장-12장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학년도 석사학위논문, 34.

14) 이환진, “존스(조원시)의 『구약공부』(1893) 룯기 번역 분석”, 『신학과 세계』 67 (2010 봄), 7-93.

<참고문헌>(References)

(1) 성경

- 『성경전서』(필요시 『구역』으로 약칭), 조선 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文理 舊新約聖書』, 上海: 聖書公會, 1933 (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Shanghai: British & Foreign Bible Society) (원출판년도 1854).  
『舊新約全書』, 福州: 大美國聖書會, 1896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American Bible Society) (원출판년도 1864).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舊約全書』, 上海: 大美國聖書會, 1878 (Old Testament in Manderin, Tienchu, ABS - Shanghai) (원출판년도 1875)  
『淺文理 新舊約聖經 串珠』(상제판), 上海: 美國聖書會, 1925 (Easy Wenli Reference Bible, Bishop Schereschewsky's Version, Term Shangti, American Bible Society) (원출판년도 1902).  
피득, 『시편촬요』, 1898.  
*The Holy Bible Containing Old and New Testaments, American Standard Version, From the American Standard Edition of the Revised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01* (원출판년도 1881).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in the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4* (원출판년도 1611).  
『성경 개역』, 서울: 성서공회, 1938 (The Holy Bible in Korean, Revised Version).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마태복음』, 1898.  
『신약전서』, 1900.

(2) 사전

- 金元中 編著, 『虛辭大辭典』, 서울: 현암사, 2003.  
『東亞 百年玉篇』, 진면 개정판, 서울: 두산동아, 2005.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e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한 불즈던 韓佛字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C. Lévy, Imprimeur-Libraire, 1880.  
Underwood, Horace Grant. 『韓英字典 한영즈던』(*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Student Edition), Yokohama, Shanghai, Hongkong, Singapore: Kelly & Walsh, L'd., 1890.

Scott, James. *English-Corean Dictionary*, K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3) 연구 논문 및 책

강선아, “일본어역 성서 번역사 - 전도서 1장-12장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학년도 석사학위논문.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 『Canon & Culture』, 4:1 (2010), 5-37.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Canon & Culture』, 4:1 (2010), 75-125.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서울: 기독교문사, 1985, 409-505.

이환진, “존스(조원시)의 『구약공부』(1893) 룿기 번역 분석”, 『신학과 세계』 67 (2010 봄), 7-93.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 주석과 성서 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기념 제2권, 왕대일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Eber, Irene. *The Jewish Bishop & the Chinese Bible: S. I. J. Schereschewsky (1831-1906)*, Leiden: Brill, 1999.

<Abstract>

## Exploring the basic Texts of Korean Old Version (1911)

Prof. Hwan-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what the basic texts of the Korean Old Version (1911) might be. Scholars think that they are presumably Chinese Bibles such as the Delegates' Version (1854) or a certain Chinese Bible followed by the Union Version in Mandarin (1919).

Through the textual analysis of some verses taken from the books of Psalms (85:10-13), Proverbs (1:1-7), and Job (1:20-2:3), we realize that the Korean Old Version mainly follows the Revised Version in English (1881) by about 53% and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in Chinese (1864) by about 47%. But at the same time, the Korean Old Version borrowed some of terms and expressions from Schereschewsky's Old Testament in Mandarin (1875) and his Easy Wenli Bible (1902).

More specifically with the book of Psalms, the Korean Old Version shares two and half verses with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while it shares one and half verses with the Revised Version. As for the book of Proverbs, the Korean Old Version shares three verses with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while it shares four verses with the English Revised Version. As for the book of Job, the Korean Old Version shares two verses with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while the Korean Old Version shares three verses with the English Revised Version.

Therefore, we assume that Koreans first translated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into Korean and then missionaries corrected the Korean translations using the English Revised Version. Why then, did the Korean translators take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as their Vorlage? It is probable that the transl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Old Version accepted James C. Hapburn's advice, who was a chief editor and translator of the first Japanese Bible with a broad experience in Bible transl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Studies (1893) by G. H. Jones also had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as its Vorlage. It seems that by the turning era of the last century,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has been regarded as a faithful Bible to the original text. As a matter of fact, it faithfully reflects the King James Version in many respects. The reason why missionaries took the English Revised Version as their primary source is that it was a faithful heir of the King James Version so that they believed it to reflect the original language fully.